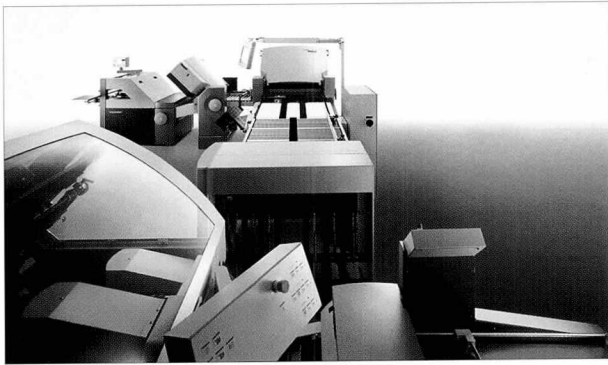


후지사진필름, 일본에 한해 소모품 가격 인상

일본의 후지사진필름(주)는 9월1일부터 오프셋 인쇄용의 제판·인쇄판 등의 제품 가격을 일본에 한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후지사진필름은 그동안 오프셋 인쇄용 제판·인쇄판 등의 제품이 제판 공정의 디지털화에 의한 수요 감소 및 은, 알루미늄, 원유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에 한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프린팅코리아 7월호 130쪽에 게재된 내용도 일본에 한한 것이다.

스탈폴더 접지기 TH/KH 인터텍어워드 수상



하이델베르크사의 스탈폴더 TH/KH 접지기가 최근 PIA/GATF 인터텍(InterTech) 어워드를 수상했다. 인터텍어워드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총 52종 후보 기계 중 17종의 혁신적 제품들을 선별한 것으로 하이델베르크로서는 이 수상식이 시작된 1978년 이후 22번째의 수상으로 기록된다. 스탈폴더 TH/KH는 최소한의 작업 준비 시간과 유연성을 자랑하며 뛰어난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며 구동이 편리하고 프리넥 FCS100을 통해 전체 워크플로에 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듈식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의 까다로운 요구도 충족될 수 있으며 모든 하드웨어 기능들도 개장이 가능하다.

플린트링크·XSYS프린트솔루션스 합병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 지역의 플린트링크(Flint Ink)사와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소재한 XSYS프린트솔루션스(Print Solutions)는 최근 합병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200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통합 수익액이 약 26억달러에 달하고 8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플린트링크사는 개인소유 세계 최대의 잉크 제조사다. XSYS프린트솔루션스는 CVC캐피털파트너스의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2004년말 BASF프린팅시스템스와 ANI프린팅잉크가 합병됨으로써 형성된 회사이다. 합병 절차는 9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회사의 자금 관리는 CVC가 담당하게 된다. 플린트링크의 데이브 프레스콜린(Dave Frescolin) 대표가 새로운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며 XSYS의 피터 코이블라(Peter Koivula) 대표는 선임으로서 주요 고객들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전략 부분을 위한 특수 이사회를 책임지는 부회장을 맡게 된다.

HP, 사이텍스 비전 인수

HP는 수퍼 와이드 디지털 프린팅 업체인 사이텍스비전(Scitex Vision)과 2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자산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8월16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HP는 자사의 대형 프린팅 사업을 산업용 수퍼 와이드분야까지 확장하여 프린트 서비스 제공업체의 원스톱 파트너로서 위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텍스 비전은 와이드 및 수퍼 와이드 포맷 프린터 분야의 선두 업체로서 옥외간판, 배너, 옥외 광고, 패키징과 같은 간판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5년 6월 말 마감 회계연도에 매출 1억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벨기에, 중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 지사가 있으며 현재 75개국에 진출하고 있다. 사이텍스 비전인수로 HP는 대형 포맷 프린터와 디지털 프레스 분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텍스 비전의 첨단 프린트 헤드 기술을 활용하여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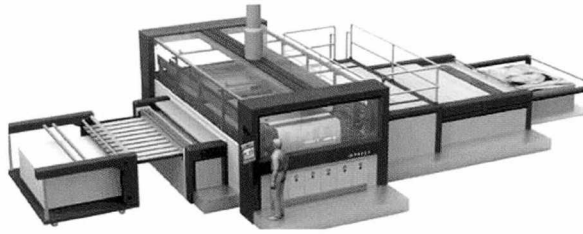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멕시코에 개관

하이델베르크사(Heidelberger Druckmaschinen AG)는 최근 멕시코에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관, 세계적으로 10번째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개관 기념식에는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약 1억명의 인구로 추정되는 멕시코에는 인쇄 및 출판 분야에 9천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 중 85%는 소규모 기업이며 10%는 중간, 그리고 5% 정도가 대기업이다. 거의 모든 인쇄 업체들은 교육의 부족과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쇄 업체의 직원들은 미숙련이며 충실한 기술 지식이 부족하다. 새롭게 개관한 멕시코의 PMA는 먼저 '에스트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언어로 'estro'는 '예술을 위한 영감과 열정'으로 해석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전수하고 참가자들 그리고 인쇄 업체들 사이의 일반적인 문화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다.

아그파, IntellSyst 시스템 1천개사 설치 돌파

아그파는 최근 Questra기반의 IntellSyst 원격 진단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이 이미 1천여개사를 돌파 했다고 밝혔다. 이 IntellSyst 솔루션은 현재 전 세계 40여국에서 1천여개 이상의 업체가 3400대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 IntellSyst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적으로 고객 설치 시스템과 아그파의 서비스 전문가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 시스템은 CTP 레이저 세기, 현상기의 온도, 생산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면서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디스크 사용 공간 등을 포함한 중요한 작업 측정 요소들을 모니터링 한다. 이 부분이 특수한 부분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아그파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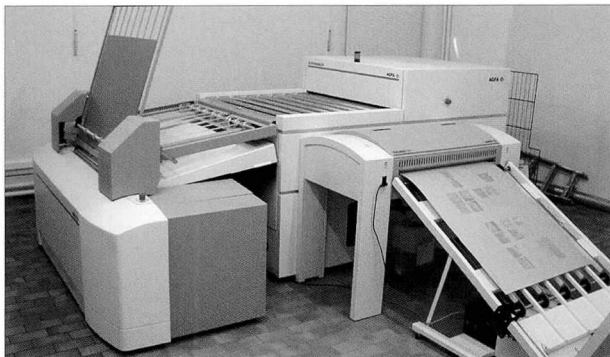
아그파 · 티엠사, 디지털 인쇄기 계약 수주



아그파와 티엠사는 최근 양사 합작으로 탄생한 고속 평판 디지털 잉크젯 인쇄기 M-press를 5건 추가 계약함으로써 총 17대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열린 Fespa쇼에서 M-press가 처음 선보이기도 전에 총 12개사가 선주문을 하는 한편 최근 독일에 있는 티엠사의 오픈하우스에서도 오세아니아, 북미와 유럽지역의 스크린 및 대형 인쇄업체들이 5대의 추가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아그파와 티엠사는 2004년 2월 양사가 보유한 전문 지식, 특허 기술력 등을 결합해 스크린 인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랫폼 디지털 인쇄기를 합작 개발, 새로운 시스템을 시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전자동 평판 잉크젯 인쇄기인 M-press는 급속히 성장해 왔지만 스크린 인쇄인들을 위한 추가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실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미징의 기술력은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그파의 전반적인 이미징 및 잉크젯 기술력과 스크린 인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티엠사의 시장 점유율, 기술력을 결합, 대량 제작 시에 경제적으로 유용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DF인쇄, 중국 최초로 무현상 CTP시스템 설치



중국 Zhejiang성 Wenhou에 위치하고 있는 BDF인쇄사가 중국 최초로 무현상 CTP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BDF인쇄사는 중국 전통과 여행에 관한 책을 제작하고 중국 및 타이완에 있는 한정판 왕궁조경을 인쇄하고 있다. 이렇게 고품격 인쇄물을 제작, 공급하고 있는 BDF사가 무현상 CTP를 설치하게 된 것은 무현상 CTP로 제작 시 인쇄품질이 현저하게 향상 된다는 점 때문이다. BDF사는 아주라 CTP시스템의 최적 구현을 위해 아그파의 엑스칼리버45 CTP 장비를 도입한 상태이며 최상의 프로파일을 구현하기 위해 서블리마 240pi 스크리닝 테크놀로지 시스템도 채택했다.

코닥폴리크롬그래픽스재판, 재료가격 인상

일본의 코닥폴리크롬그래픽스재판(KPG)은 오는 10월1일부터 제판 필름, PS 판, CTP 플레이트에 대해 최고 17%까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KPG는 가격 인상에 대해 "지금까지 알루미늄, 원유, 은 등 플레이트 및 필름의 제원 재료의 상승에 의한 제조 비용의 상승에 대해 제조공장의 통폐합을 포함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생산 효율의 개선 그리고 전사 규모에서의 경비 절감이나 판매 비용의 삭감 등의 시책에 의해 가격의 유지에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의 알루미늄 가공비의 가격 상승을 시작해 주요 원재료의 한층 더 상승, 디지털화에 의한 아날로그 감재 수요의 감소 등이 겹쳐 제조 비용의 상승은 벌써 기업 노력으로는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이커 희망 수요가 가격 개정률은 제판 필름 17% 인상(열상 타입 드라이 필름 30% 인상), PS판 17% 인상, CTP플레이트 6% 인상.

코니카미놀타엠지, 미국 아메리칸리소사 인수

코니카미놀타엠지(주)의 미국 자회사인 코니카미놀타그래픽 이미징 U.S.A.사는 최근 미국의 대기업 인쇄용 플레이트 메이커인 아메리칸리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양 회사 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로 아메리칸리소사는 코니카미놀타그래픽 이미징 U.S.A.사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매수 금액은 추가 설비투자를 포함해 약 40억엔을 예정하고 있으며, 최종 계약 체결은 8월31일. 아메리칸리소사는 최신 인쇄용 플레이트 생산 설비를 가진 메이커로 신문이나 상업인쇄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인쇄용 플레이트의 생산 판매 회사다. 코니카미놀타그래픽 이미징 U.S.A.사에서는 이번 매수로 미국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제판 재료의 유연한 생산 거점을 가지는 것으로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CTP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CTP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로랜드, 10개국 11명 기술대학 교수 방문

만로랜드는 최근 10개국에서 모인 11명의 기술대학 교수들이 독일 오펜바흐에 위치한 만로랜드 본사와 그래픽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프린트프로모션(Printpromotion) 진행, 공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강연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러시아공화국, 세르비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기술대학에서 온 교수들은 만로랜드의 조립 라인과 주물 공장을 시찰하고 그래픽 센터에서 컬러매니지먼트와 고부가가치 인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만로랜드 중형 포맷 제품 마케팅팀의 울리히 바이텔(Ulrich Beitel)은 인라인 강화와 자동 품질 관리와 함께, 오늘날 고부가가치 인쇄의 경제성과 기술적인 양상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 교수들은 그래픽 센터에서 만로랜드 매엽 오프셋 인쇄기가 실제 가동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